

햇쵸!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하고 장학생되자! 국가 장학금

'23년 1학기 1차 신청기간
'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2. 11. 24.(목) 9시 ~ '23. 1. 5.(목) 18시

※ '22. 12. 9.(금) 18시 이후 서류 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시, 타 장학금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 ③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통신사PASS, PAYCO,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 (누리집)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 앱) 장학금 ▶ 서류제출

특별기획 -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만화 그리며 성장하는 아이들

12 vol.485

2022 DECEMBER

행복한 교육

0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0 꿈이 영그는 현장

공립 최초 IB월드스쿨 대구 삼영초
“학교가 살아있다”

42 교육웹툰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갑니다~

48 진로직업인

여행기획사, 장영복 신발끈 여행사 대표
“여행의 시작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지”



행복한 교육

12

vol.485 2022 DECEMBER

COVER STORY

대구 삼영초등학교(교장 이옥정)는 전국 공립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초등과정 월드스쿨로 공식 인정된 학교로 지난 3년간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으로 I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교사 협력 기반 교육과정 설계, 교사 연수, 수업 성찰 등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이뤘다. 사진은 마지막 전시회(Exhibition)를 준비하는 6학년 남도현, 정지호, 변정연, 강은서 학생(왼쪽부터).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전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이경화, 정성경, 김수연, 정미화
사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26



48

특별기획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성장하는 아이들

22

학생건강 책임지는 학교체육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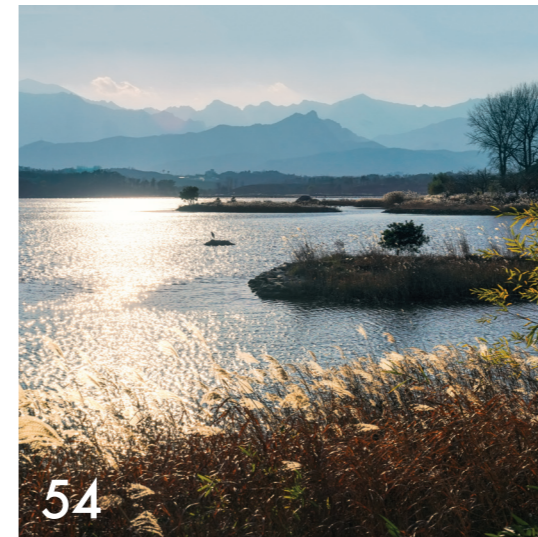
“야호, 학교스포츠클럽 다 모여라!”

30

스마트하게, 더 다양하게 진화하는 학교체육

34

학생선수, 운동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54

0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06 네 꿈을 펼쳐라

인천 하늘고등학교 양봉동아리 ‘비키퍼즈’
 “지구지킴이, 꿀벌은 우리가 지켜요”

10 꿈이 영그는 현장

공립 최초 IB월드스쿨 대구 삼영초등학교
 “학교가 살아있다!”

14 교육포커스

진영 논리 프레임을 넘어선 새로운 학력에 대한 시대적 요구

18 아듀 202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38 명예기자 리포트

‘여주한글시장’을 아시나요? 外

42 교육웹툰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갑니다~

44 교육자치시대

경상북도교육청_초등 학습지원 플랫폼 ‘온학교’
 실시간 ‘소통’ 기반 열린 배움터

47 이달의 교육뉴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 원 편성 外

48 진로직업인

여행기획자_장영복 신발끈 여행사 대표
 “여행의 시작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지요”

52 체험! 진로현장

여행기획자를 위한 배움터

54 일상의 심포

신라 화랑의 마음을 사로잡은 속초 영랑호를 건다

58 교실혁명

찬찬히 체계적으로 ‘느린 학습자’ 지도하기

62 혼자보기 아까워서

3년 만에 열린 전 학년 체육대회 外

64 독자마당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난 10월 마지막 주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특히, 학생,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교육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안전교육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개혁 노력 절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임 후에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조국을 위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으나, 현재 더 이상 교육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전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더라도 하향식 일방향이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개혁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변화를 원할수록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하여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복지·노동을 연계하여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지 인재상부터 완전히 다시 정의하여야 합니다. 지필고사를 통하여 암기능력을 키우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결코 21세기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 등을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잠자는 우리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교사의 지식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교육이 출발선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국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 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범부처, 지자체, 관계기관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외부의 질타와 수장의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읍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학교, 대학,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포용적인 자세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 11. 7.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천 하늘고 양봉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한편에 마련된 양봉장에서 벌을 관찰하고 벌통을 돌보는 등 양봉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양봉동아리 'Beekeepers(비키퍼즈)'

“지구지킴이, 꿀벌은 우리가 지켜요”

올해 초 전국 각지에서 겨울나기 중이던 꿀벌 78억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이제 꿀벌의 군집 붕괴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인천 하늘고(교장 김일형)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학교 한편에 양봉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겨울 어느 날, 강화도로 겨울나기를 떠난 벌들의 안녕을 바라는 비키퍼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_ 편집실 사진_ 인천 하늘고등학교

책임감 있게 돌보는 꿀벌

“꿀벌은 정말 귀여워요.”

노란 줄무늬 몸통에 보송한 솜털마다 꽃가루를 묻히고 있는 꿀벌의 모습을 설명하는 학생들의 눈에서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처음부터 꿀벌이 예뻐던 것은 아니라고. 벌통 하나에 대략 1만여 마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벌의 날갯짓에 흠칫 물러서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벌이 잘 드는 양봉장에서 꿀벌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수연(2학년) 학생은 “사실 벌통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지난해에는 10통에서 시작한 벌통이 30통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할 일이 진짜 많았다. 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양봉 활동은 겨울잠을 자는 벌을 깨우는 ‘봄 벌 깨우기’부터 시작된다.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 나가서 꽃밭을 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봄꽃이 한창 피어날 4-5월에 열심히 꿀을 따올 수 있도록 벌의 개체 수를 늘리고 튼튼하게 키워내는 작업을 계속한다. 그리고 나서는 벌통의 꿀을 정리하는 채밀 과정이 필요하다. 원하는 품종의 꿀을 뜨기 위해 그 전에 채워져 있는 꿀을 비워내는 과정인 셈이다. 5월에는 아카시아꿀을 채밀하게 되는데 그전에 벌통에 들어 있는 꿀을 정리해야 다시 벌집을 꿀로 채울 수 있다. 아카시아꽃이 지고 나면 잡화꿀을 채밀하고, 그 이후에는 밤꿀을 채밀한다. 채밀을 하는 것에는 벌들이 다양한 식물의 수분 과정을 더 많이 돕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꿀을 수확하는 과정이 마무리 되면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벌통을 분할해 주고 진드기와 응애 같은 기생충을 방제하는 작업이 필수이다.

김세은(2학년) 학생은 “매일 벌통에 물을 주고 꿀벌들이 밤사이 벌일 없었는지 양봉장으로 살피러 가는 게 일과 중 하나였는데 벌통을 강화도로 보내고 나니까 어쩐지 허전하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보내야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아쉬워했다.

학생들은 꿀벌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1학기 동안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여름방학부터 2학기에는 문헌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보고서 제작 등에 집중한다. 2021년에는 김민서, 남세현 학생이 양봉을 테마로 한 ‘꽃잎의 자외선 무늬와 휘발성 화합물을 이용한 친환경 bee road(벌 전용 길 설계)’ 연구로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천도현 교사는 “통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다. 특히 학교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다.”라며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꿀벌을 소중히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고 진심으로 돌봐 달라고 당부했다.

꿀 수익 전액 기부활동

개교 10주년인 지난해, 하늘고등학교는 무한상상과정으로 양봉동아리를 시작해 보자고 의기투합했다. 무한상상과정은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타인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함으로써 지식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꿈열정지원부 부장인 천도현 교사는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와 환경,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양봉동아리를 기획했지만, 학생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떠올렸다. 이 같은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6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해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올해도 양봉동아리는 인기가 높았다. 생명공학과 수의학 등 자연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비롯해 벌의 군집을 정치 사회 구조와 비교 분석해 보고 싶은 학생, 건축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벌이 생산하는 봉산물의 제작과 판매 등 경제경영 쪽을 연구하고 싶은 학생 등 25명의 부원이 5명의 담당 교사와 서로의 관심 분야를 나누며 활동 중이다.

지난해 수확한 아카시아꿀과 잡화꿀은 추첨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남은 꿀은 판매해 2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수익금은 올해 초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 전액 기부했다.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약을 통해 제작한 꿀 쿠키와 교내 바자회에서 꿀 아이스크림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250만 원은 말벌 집 제거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1 벌통의 꿀을 채밀하는 학생들
2 수확한 아카시아꿀과 잡화꿀은 추첨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일부는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을 그린피스에 기부하였다.



Beekeepers

Mini Talk



김세은 2학년 학생

어릴 때 부모님과 양봉장 체험을 다닐 정도로 원래 벌에 관심이 많았다. 내 손으로 직접 벌집 통을 들어서 벌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 먹는 모습, 바쁘게 날갯짓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밀집해 있는 작은 생명체들은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최근 벌의 군집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원인이 궁금해졌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전자파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휴대폰이나 라디오와 같은 일상 속 전자파로는 영향이 아예 없었다. 그렇지만 고주파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과제로 남았다. 3학년이 되어서도 양봉장 길을 떠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밀도(채밀 도구) 경력직이니깐!

유수연 2학년 학생

어릴 때부터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을 소재로 책을 만들고 싶었다. 양봉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꿈에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기숙사에 남아서 벌통을 돌보겠다고 자원했다. 마침 벌통을 떠나게 된 여왕벌 한 마리를 선생님께서 돌보게 해주셨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여왕벌은 벌통을 떠나서 오래 살지 못하지만, 열심히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면서 돌봤다. 새로운 여왕벌이 1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벌통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돌보던 여왕벌을 다시 벌통에 넣어 줄 수 있었다. 정말 기쁘고 뿌듯했다. 앞으로도 생명과학 쪽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유에서 1학년 학생

입학 초기 도전정신이 넘칠 때 양봉동아리를 만나게 되었다. 원래 벌이나 곤충을 무서워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 같이 벌집을 관찰할 때 알을 뚫고 애벌레가 나오는 경이로운 순간을 보게 되면서 벌의 매력에 푹 빠졌다. 또 작은 생명체가 열심히 일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그래서 원래는 의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이슈에도 눈길이 많이 간다. 정책 입안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이 생겼다. 곤충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서 이제는 기숙사에서 ‘방역’을 맡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양봉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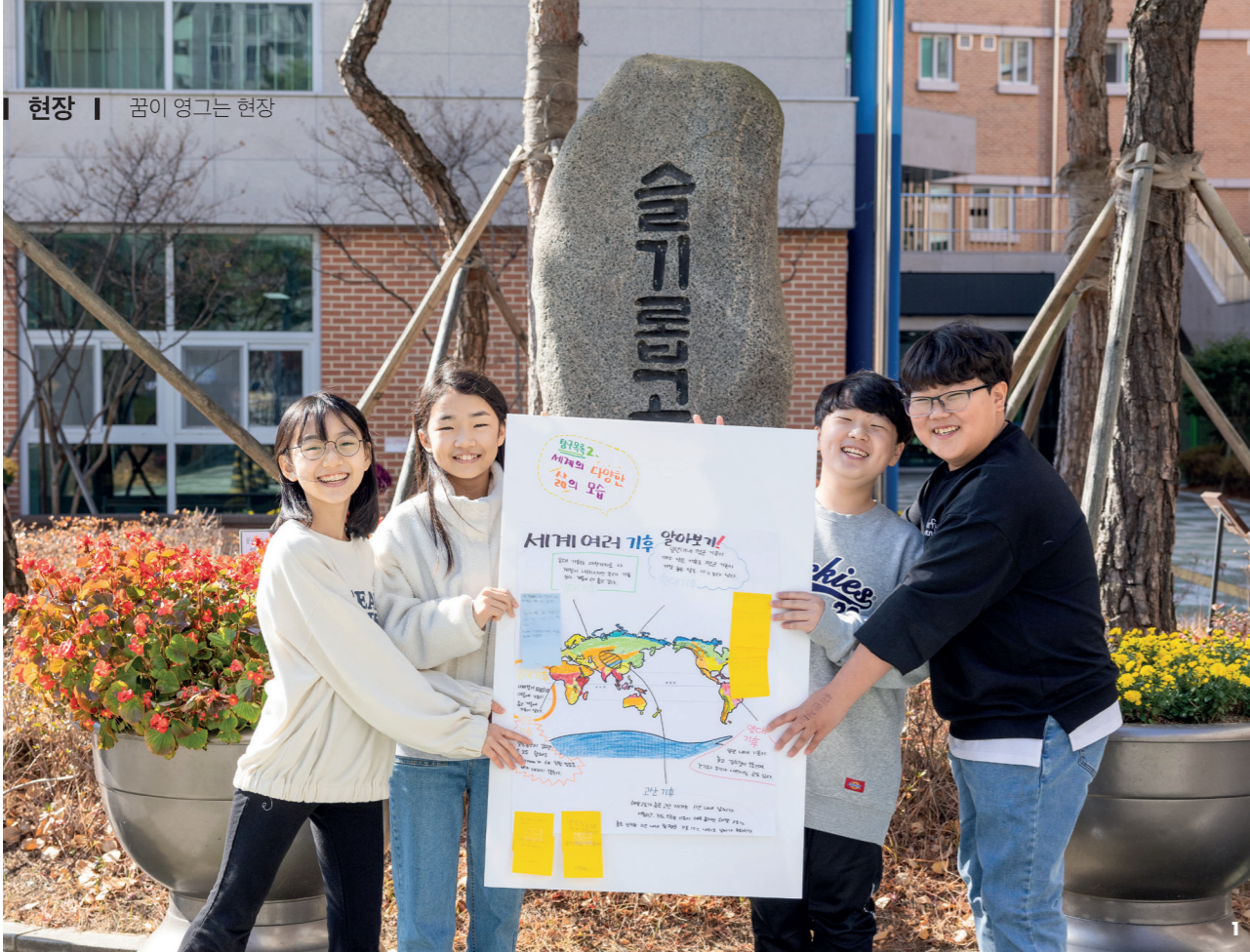


정가는 1학년 학생

어릴 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곤충 표본을 제작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재교육원에서 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양봉동아리 활동을 꼭 하고 싶었다. 동아리 활동 덕분에 꿀벌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다. 그래도 보호복은 꼭 착용한다. 지금은 꿀벌의 천적인 말벌을 퇴치하는 기계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꿀벌과 말벌 날갯짓의 파장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코딩한 뒤 말벌을 쫓아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사하는 기기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에 출품하는 것이 목표다.



현장 | 꿈이 영그는 현장



1 IB 수업으로 탐구가 재밌다는 학생들. 마지막 전시회를 준비하는 6학년 강은서, 변정연, 정지호, 남도현 학생(왼쪽부터)

공립 최초 IB월드스쿨 대구 삼영초등학교

“학교가 살아있다!”

대구 삼영초등학교(교장 이옥정)는 전국 공립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초등과정 월드스쿨로 공식 인정된 학교다. 학교는 지난 3년간 대구교육청의 지원으로 I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교사 협력 기반 교육과정 설계, 교사 연수, 수업 성찰 등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이뤘다. 이를 통해 토론·발표 중심 수업 뒤 논술·서술형 평가가 이뤄지고, 토론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 삼영초는 학생-교사-학교가 주도성을 가지고 IB의 사명인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학생’을 키워내고 있다.

글·사진_ 편집실

‘탐구’가 자연스러운 수업

11월 어느 날, 6학년 수업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29일에 열리는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다. ‘자유주제 탐구활동’ 중인 학생들은 팀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사전을 뒤적이며,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또는 선생님에게 질문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주제를 활발하게 ‘탐구’ 중이었다. 교실이 왁자지껄, 살아있었다.

5학년 교실, 3학년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마저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 ○○ 주제를 탐구 중이에요.”라는 대답을 들려줬다.

수업 중에 만난 6학년 1반 강은서 학생은 “탐구는 조사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전쟁’을 주제로 탐구하면서 ‘내가 전

쟁을 일으킨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 같은 반 정지호 학생은 “탐구는 조사활동에 성찰 이랑 협동이 합쳐진 것”이라며 “조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신이 성찰한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협동을 통해 실제로 적용해본다.”라고 말했다. 6학년 2반 남도현 학생도 “탐구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대답처럼 수업 시간은 여기저기, 이런저런 주제들이 ‘탐구’되면서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논의하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들은 “선생님은 주제를 주시는 분, 검색창 같은 느낌, 매니저, 내비게이션, 책”이라고 답했다. 학생 주도적인 수업에 교사들은 철저하게 돕는 역할로 참여하고 있었다.

대구 삼영초는 IB의 학습자상에 따라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감 있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을 추구한다. 교실마다 학생들이 뽀뽀뽀뽀 직접 적어 교실 앞과 칠판 옆에 붙인 학습자상처럼 실제 교실마다 ‘탐구’와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었다.

유기체로 움직이는 학교

대구 삼영초는 대구 변두리에 지어진 학교다. 공단 지역에 있다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15년에는 임시휴교를 했었다. 그러다 2018년 3월 신도시로 개발된 현재 위치에 미래형 학교 설계를 반영한 신축학교로 재개교했다. 주위엔 고등학교가 없을 정도로 학군마저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삼영초에 다니기 위해 전학 온 학생도 있다고 한다.

삼영초의 학생들은 학교 오는 것이 즐겁다. 강은서 학생은 “학교는 놀이터”라고 표현했다. 정지호 학생은 “학교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계단”이라고도 말했다.

이옥정 교장은 “아이들이 놀아도 학교에서 논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으로 넘어간 경우가 없어요. 학생주도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무엇이든 스스로 하는데, 학생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화하고 풀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학생주도로 학교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하겠지’라며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삼영초는 선거에서 내는 공약도 꼭 현실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회의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2 자기주도 수업으로 탐구활동에 적극적인 3학년 학생들



3 IB 수업에서 교사가 주제를 주면 학생들은 스스로 수업을 진행해간다.



4 수업에서 교사는 돕는 역할로 학생들의 매니저, 내비게이션이다.
 5 외부강사를 초청해 열린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킨다.
 6 7 학교 곳곳에 학생들의 탐구 결과들이 전시되어 있다. IB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 생산자로 성장한다.

실행한다. 흔히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의 건의에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이 교장의 대답을 들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찾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실행한다. 교장도, 교사도, 교직원도 학생 주도적 활동에 함께 한다. 아이들의 활동은 학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6학년 2반 변정연 학생은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관해 탐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한 내용을 주위에도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탐구활동이 학교 밖을 넘어선다.

공립학교 최초로 IB월드스쿨 인증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IB교육이 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본부(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삼영초는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를 운영 중이다. IB월드스쿨로 인증받기까지 학교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국가 교육과정과 함께 IB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그럼에도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해 교사들은 기꺼이 헌신했다. 탐구학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도 물론, 보람도 한껏 끌어 올렸다. 매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평가에서 삼영초의 교사 만족도는 100%이다.

IB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들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옥정 교장은 12월경 5일간의 ‘삼영 PYP 학부모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 교장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나의 내면 성장을 시작으로 자녀에게 바라는 인간상, IB 프로그램 이해, 도서관 활용수업 실습, 2023 학부모 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된다.

“학교에 와서 학부모가 봉사활동하는 게 참여가 아닙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진정으로 참여하려면 먼저 학교가 추구하는 개념과 이상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주도성이 왜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IB를 알고 학습자상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상, 교육관과 IB가 추구하는 교육관을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IB교육을 통해 나중에 커서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공유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 활동입니다.”

다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다

대구 삼영초는 IB 관심학교(2018.11~2019.12)와 IB 후보학교(2020.1~2021.8)를 거쳐 지난해 7월, IB본부로부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인증심사 방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8월 대한민국 공립학교 최초의 IB PYP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삼영초가 IB월드스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 교육청의 진심 어린 후원이 있어서다. 현재 대구에서는 10곳의 IB학교가 있다. 그중 월드스쿨은 7곳이다. 대구시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신선헌 장학사는 “교육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동반성장”이라고 말했다.

“탐구 수업을 참관하면 학생들과 교사의 열정이 보여요. 월드스쿨은 연 2회 이상 공개수업을 하는데, 80~100차가 되는 탐구 주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만으로 IB 프로그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개수업을 참관한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수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사실 IB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학교 본연의 모습, 학생들이 탐구하는 곳으로써의 학교를 만드는데 IB 프로그램은 도구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모든 학교가 IB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B학교를 지역의 거점학교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IB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IB의 첫 번째 정신이 학생, 교사, 학교의 주도성이기 때문에 방향 제시와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지난 10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구에서 열고 IB 초·중·고 수업을 공개했다. 특히 관계자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후문이다.

신 장학사는 “IB월드스쿨이 되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IB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췄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성과를 묻는데, 현재는 정성평가밖에 없다.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IB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역량과 만족도 등 총체적인 역량을 다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사실 교육의 본질은 교육부의 교과과정과 IB 프로그램이 같다.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로 접목해 교사들의 업무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수업에서 IB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정승아 교사는 “수업 준비가 힘들지만,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평했다. ㉔



6

7

진영 논리 프레임을 넘어선 새로운 학력에 대한 시대적 요구

글_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66 [기존의 선다형 시험에서의 성취를 학력으로 보기보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역량이 학력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99



교육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태생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경제에서 성장과 복지(분배)라는 방점이 다른 두 가치처럼 교육에서도 학생의 성장과 복지의 두 가치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 교육감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압축 경제 성장 정책을 폈고 그에 따라 교육도 학력 강화를 통한 성장 정책이 중심이었다. 그러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교육에서도 학력, 수월성, 경쟁, 서열보다 학생 각자의 ‘꿈과 끼를 찾는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등의 구호로 성장보다 복지가 중심 가치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지난 10여 년간의 민선 교육감선거에서 그대로 반영되면서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이뤘다. 그런데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국민의 표가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학생의 성장과 복지 간의 균형을 맞추라는 요구였다.

무엇을 학력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지표가 뚜렷한데 교육에서는 무엇을 학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성장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교육감선거가 기존과 뚜렷이 다른 점은 학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기존과 다른 학력 개념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의 57명 교육감 후보 중, 12개 시도교육청의 17명 후보가 국제바칼로레아(IB)를 공약하거나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2019년부터 한국어화 계약을 체결하고 IB를 공립학교에 도입하기 시작한 대구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 더하여, 올해 IB를 공약한 교육감 후보 중 경기, 서울, 충남, 경남 교육감이 추가로 당선됐다. 최근에는 공약하지 않았던 부산시교육청도 IB 도입을 선언했고,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도 검토하고 있다.

IB는 1968년 스위스에서 UN 주재원 자녀들이 본국의 대입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국제 공인 대입 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적이

없어서 태생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가치만을 주입할 수 없고, 각 국가 및 지역의 특성을 매우 중시한다. 다만 각 국가의 로컬 이슈를 로컬만의 시각뿐 아니라 글로벌 시각으로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의 확장을 장려한다. 다른 생각들 간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보다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탐구심 있고 지력이 있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는 수능과 내신 모두 전 과목 논·서술/프로젝트 기반의 정성평가임에도 채점의 공정성을 전 세계 수천 개의 명문대에서 인정받아 현재 160여 개국에 확산되어 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시대 순에 알맞게 나열한 것은?”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배운 작품 둘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쓰시오.(국어)”, “동학혁명은 일본의 조선 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2시간 동안 논하시오.(역사)”, “친구가 낮은 성적에 상심해 밤낮없이 공부하는데 병이 날까 걱정이다. 친구에게 걱정하는 이유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제안하는 이메일을 영작해 보시오.(영어)” 등과 같은 문제가 IB 수능 시험이다. 이런 시험은 우리 수능과 다른 학력을 측정한다. IB가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학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다형 시험에서의 성취를 학력으로 보기보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역량이 학력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생각하는 힘’ 평가하는 새로운 학력 필요

이러한 새로운 학력의 IB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 각 시도의회 및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IB에 대해 비판 논리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수교육감이 추진하려는 IB 교육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귀족교육, 엘리트교육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보수교육감이 IB 교육 확대를 반대하려는 입장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읍면 지역에 IB를 도입했더니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2017년 IB 도입을 최초로 선언한 이석문 당시 제주 교육감은 1%의 학생만 받던 IB 교육을 99%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회균등의 원리로 한국어 IB 학교를 낙후된 읍면지역에 도입했다. 2011년부터 영어판으로 IB를 운영해 온 경기외고와 다른 모델이다. 현재 IB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감도 경기, 대구, 부산은 보수 성향이지만, 서울, 충남, 경남, 전남은 진보 성향이다. IB 교육은 이미 진영 프레임을 넘어섰다.

새로운 학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유력 정치인들도 진영을 망라하여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자민당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에 IB 교육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교육에 도입하는 정책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선포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수천만 원씩 학비 내는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서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국가가 전체 자국어화하여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함으로써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해소하겠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의 람 임마뉴엘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은 시카고 시장이던 시절(2011-2019), 일반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입 격차가 20% 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이 IB 교육 이후 3% 포인트로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시카고 저소득층 공립학교에 정책적으로 IB 교육을 도입했다. 그는 경제와 교육에서의 격차 해소 전략으로 IB를 정책화했다.

최근 영국 노동당 출신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자국의 대입 시험인 에이레벨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면서 IB를 참고하여 브리티쉬 바칼로레아 체제를 개발하자고 발표했다. 그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비판적 창의적 교육이 유용하다는 PISA 결과를 인용하면서, 좁은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의 논술 대입을 폐지하는 급진적 교육개혁을 주장했다. 보수당 출신의 존 메이저 전 총리도 지지 서명을 했다. 이미 전 과목 논술 대입 시험을 운영하고 있던 영국조차도 자국의 에이레벨이 더 지식 콘텐츠를 평가하고 IB가 보다 사고 역량을 평가한다면서 대입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B 찬반 논의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진보/보수 진영 프레임에 넘어섰다.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역량은?

4차산업혁명은 사회, 경제, 노동 시장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생존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노동 시장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 업무 직업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비반복적 분석이나 대인관계 업무가 증가해 왔는데, 4차산업혁명은 이를 가속한다. 이제 직업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상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입 개편을 러시안 룰렛 돌리듯 미루고만 있다. 지난 정부에서 2028 대입부터 논술형 수능 적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객관식 수능은 존치한 채 논술 문항 일부 추가 수준으로만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 현 수능 존치를 전제하면, 수업이 안 바뀌면서 평가만 추가되는 거라 학생은 혼란스럽고 사교육 시장은 폭발할 것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은 제대로 길러질 수 없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영국의 에이레벨은 전 과목 논술 평가임에도 보다 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는

체제로 급진 개혁 주장이 나오는 판인데, 우리는 여전히 객관식 수능 존치를 전제하고 대입 개편안을 모색하는 시대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구한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형 바칼로레아로 평가 패러다임 전환

IB 시범 도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 과목 논술 및 프로젝트의 정성평가임에도 채점의 공신력을 갖춘 IB 평가체제를 참고해서 국가 전체의 수능과 내신 평가 패러다임을 선진화하는 가칭 KB(한국형 바칼로레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10년 로드맵을 계획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채점관들이 우리 교사들로 양성된다면 수능과 내신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식/정보 확인 위주의 객관식 수능을 폐지하고, 비판적, 창의적, 협력적, 소통적 문제해결 역량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동시에 시작했으니 이제는 정쟁보다 교육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단체, 대학 등이 다함께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지, 어떤 능력을 평가할 것인지,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구한말 근대화를 했어도 너무 늦게 해서 나라를 잃었던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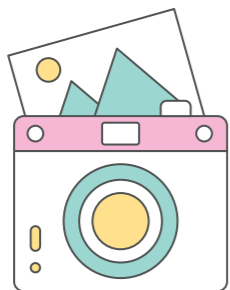
“ IB 시범 도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가 전체의 수능과 내신 평가 패러다임을 선진화하는 가칭 KB(한국형 바칼로레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



ADIEU 202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2022년은 코로나19 3년 차로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생 안전 점검을 하고, 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디지털 인재와 범부처 차원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도 수립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교육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짚었습니다.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상황과 제한된 학습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올해 3월 '기초학력 보장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10.11)'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며, 코로나19 대응 교육 결손 해소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교원양성 과정 개선, 교사 지원 등 학습지원 기반의 교육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안전 점검

지난 5월 2일부터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지 못했던 다양한 단체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비교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체험활동에 따른 사고, 학교 노후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250개 교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 점검(5.18~7.6)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소방청은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과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99개 기관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에 장애물이 없는지 조사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챙겼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지난 9월 2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염원에 따라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행하던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적 교육체제 내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8.22)'을 수립했습니다.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학교·대학·민간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고 디지털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정보교육이 대폭 확대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인재 양성

일상의 디지털화로 산업·안보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구성해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재양성 경로를 마련하여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하여 양질의 고급 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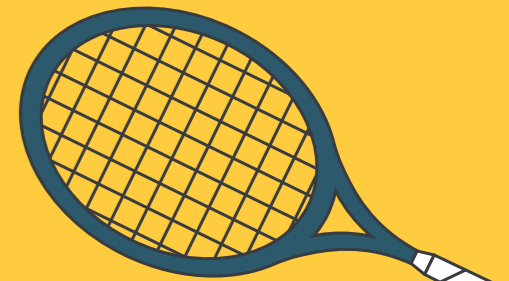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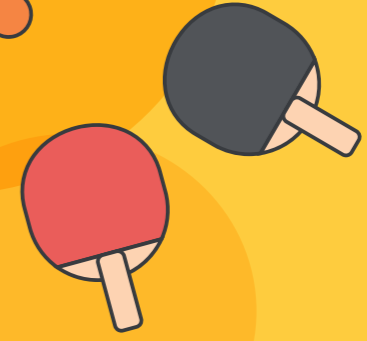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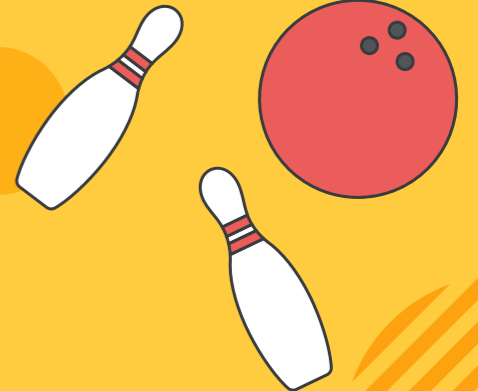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사회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도 '똑똑 수학탐험대', 'AI펍톡', '책열매' 등에 AI가 도입됐으며, 교육 현장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구축 예정인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나 AI·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에도 AI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인간성장의 잠재성 유도,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등이 포함됐습니다. ⑦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성장하는 아이들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했던 아이들의 체력 저하,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학교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2년째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도 올해에는 대면/비대면으로 나눠,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경기가 펼쳐졌다.

여기서는 생생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현장 분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학교체육 수업, 그리고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학생선수 지원 방안과 교육부의 학교체육 정책 등을 살펴봤다.

- 22 학생건강 책임지는 학교체육
- 26 “야호, 학교스포츠클럽 다 모여라!”
- 30 스마트하게, 더 다양하게 진화하는 학교체육
- 34 학생선수, 운동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학교체육 활성화로, 학생의 체력과 꿈을 키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신체활동 감소 현상으로 건강 체력이 저하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활동 회복은 학습·정서·심리 회복과 더불어 교육결손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체육의 내실화 및 학교 중심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며,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 ‘학생건강 책임지는 학교체육’이라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학생건강 체력 증진과 더 나아가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학교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교육부는 2022년, 학교 현장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 및 학생선수 그리고 교원, 지도자 등을 지원하는 5개의 중점과제와 3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약 129억 원을 편성·운영하였다<표 참조>.

5가지 중점과제 중 ① ‘학교체육 운영 내실화’ 중점과제에서는 미래형 체육수업 운영의 지원 및 건강체력증진 활동 강화로 학생의 체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질 제고’ 중점과제에서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화 있는 운영과 함께 지역 및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다양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전국 단위에서도 대면·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도모에 힘쓰고 있다.

학교체육 운영 내실화 지원을 통한 체력 향상

교육부는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체육수업과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을 위한 온라인 운영 체제(학교체육 교육 종합포털)¹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체육수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였다. ‘스포츠 메타 School: 온라인체육교실’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의 신체활동 기록을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성장시키는 게이미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이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활용하여 교사가 수업 전·중·후에 학생들에게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피드백 제공 등으로 생활 밀착형 신체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학생들도 친구들과 리 신체활동의 누적 상황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하였다.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고,

표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5개 중점과제와 39개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예산(백만 원)
①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 미래형 체육수업 운영 - 건강체력증진 활동 강화 -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 개선	3,346
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대면·비대면 운영 확대 - 학교-지역 연계 운영 기반 마련 - 학교·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운영	9,249
③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 학습권 보호제도 기반 강화 -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확대 - 인권보호 및 학폭 예방 강화	296
④ 교원 및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 교원의 체육교육 전문역량 지원 -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역량 함양 지원	-
⑤ 학교체육 관리 체계(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학교체육 통합 거버넌스 구축 - 학교체육교육 지원체계 기반 마련 - 학교체육교육 대국민 인식 제고	-
합계		12,891

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개발된 체육교육 자료 체계화 등

66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삶, 즐거운 삶과 함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9

그 결과에 따라 시도별 특성을 살린 학교급별·체력급수별 프로그램²으로 맞춤형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양성 제고를 통한 체력 증진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1인 1스포츠 실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체계화 및 다양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였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특성과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수준별 운영을 강화하였고, 학교-지역 연계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력하여 지정스포츠클럽³을 운영하였다.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되어,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였다. 전남의 ‘땅끝해남스포츠클럽’에서는 ‘내일은 야구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클럽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4개월간 총 42회에 걸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였다. ’20년~’21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었던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도 올해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팀 활동 중심의 스포츠경기를 선호하는 학생을 위한 대면 축전과 함께 보다 쉽게 자기

² 틈새 시간 활용한 교내 순환운동 코스 개발·운영(대구교육청), 줄넘기·건강달리기·계단운동 등 학교자율 프로그램 운영(세종·충북교육청)
³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총 69개소) 중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단위 학교 총 36개교 지원



1 국민체력100 센터 연계 건강체력교실 운영



2 가상체험(VR) 체육실 활용 체육수업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위주의 비대면 방식의 병행으로 더 많은 학생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여⁴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의 학생 및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를 더했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소통하고 땀을 흘리며, 같이 성장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학생 신체활동 생활화를 위한 지원체계 지속 운영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체육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학교체육 정책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대한체육회 등이 함께 학교체육 관련 현안 및 쟁점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정책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는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외 사례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살펴 학교체육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정책 수립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삶, 즐거운 삶과 함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체육 정책의 지속적인 계획·이행으로 모든 학생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스포츠를 향유하고 즐기는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유관기관의 협업을 이끌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⁵

⁴ (대면 축전) 총 16개 종목 19,594명, (비대면 축전) 총 15개 종목 11,957명



3 경기도 건강드림학교 운영 사례



4 지자체스포츠클럽 학교체육 지원 사례(전남)

“야호, 학교스포츠클럽 다 모여라!”



1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여한 티볼선수단(사진제공=학교체육진흥회)
 2 제주에서 열린 대면 탁구대회(사진제공=학교체육진흥회)
 3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화면 캡처)

“반갑다, 함께 신나게 뛰어보자”

지난달 12일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전국에서 모인 40개 학교스포츠클럽 족구팀 덕분에 시끌벅적했다. 13일까지 이틀 동안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이하 축전)에 참여한 30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는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며 설렘 가득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추구하는 ‘경쟁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위해 순위를 가리지 않고 리그전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재학생들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다. 각 종목 협회나 학교 운동부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없다. 순위 등 경기 결과가 아니라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의 팀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족구대회 참가팀은 첫날 조별 리그 경기 후 다음 날에는 상위리그, 하위리그로 나뉘어 수준별 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 외에도 국가대표 시범단의 신나는 족구 교실, 현장 안전교육 체험 실습, 참가학생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즐겼다.

허승행 충남족구협회 사무국장은 “수능을 앞두고 있어 고3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지만 오랜만에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니 뿌듯하다.”라며 “족구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더욱

66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경기하는 경험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기쁘다.

99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대표로 참가한 전라고등학교 김승현(3학년) 학생은 “수능을 앞두고 부담도 되었지만, 학창 시절 마지막 대회여서 참가하게 되었다. 연습량은 부족했지만, 대회에 오게 되어 즐겁다.”라고 말했다. 경기를 참관하던 학부모 강민기 씨도 “올해 아이들이 지역 대표로서 축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경기하는 경험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전했다.

김상훈 부산보건고 족구팀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축전에 참여해 왔다.”라며 “족구는 평생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부상 위험도 적고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족구 경기를 하는 동안 협력하며 서로 배려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비대면 축전 동시 진행

지난 13회, 14회 축전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비대면 첫해인 2020년에는 기록 측정 중심의 15개 비대면 종목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수행 영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시상했다. 이후 2021년에는 결승 경기에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도입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였다.

윤창현 학교체육진흥회 과장은 “전국학생스포츠클럽 축전은 각 시도교육청이 분산 개최한다. 담당

장학사들로 구성된 운영지원단에서 전체적인 방향과 기획 과정이 이뤄진다.”라며 “비대면 축전의 종목 선정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스포츠 한마당의 선례를 많이 참고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면 경기와 비대면 경기를 함께 진행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해 11월 27일까지 대면 경기가 진행됐으며, 교육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등을 통한 비대면 경기 도 함께 열렸다.

치어리딩, 탁구, 풋살, 티볼, 플라잉디스크 등 대면 16개 종목은 서울, 제주, 전남, 대구,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다. 대구에서 개최된 티볼대회에는 총 59개 팀이 참가했으며, 각 지역에서 선발된 모든 출전팀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인증 야구공 트로피와 기념품을 선물 받았다. 또 ‘난타 및 댄스동아리 공연’과 경기 대기 시간에 ‘홈런왕 선발전’, ‘강속구 대결’, ‘김용달 위원의 용달매직 타격법’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제주에서 열린 탁구 대회에서도 경기 외에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굴껍질 까기(굴껍질 아트), 탁구의 재탄생, 텀 볼을 이겨라, 포토존 등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플랭크, 버피텐 등은 비대면 대회로

비대면 축전은 플랭크(몸을 엮드린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스포츠스타킹(컵을 빠르게 쌓고

특별기획 2 _ “아호, 학교스포츠클럽 다 모여라!”

내리는 경기), 줄넘기 이중 뛰기, 농구 자유투 던지기, 탁구 랠리 등 15개 종목에서 경기 요강을 준수한 수행 영상 제출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왕복달리기, 저글링(양손으로 공 3개 주고받기), 제기차기, 서킷트레이닝(여러 가지 운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순환운동), 버피텐(바닥 짚고 점프하기 체력운동), 탁구 등 6개 종목은 먼저 수행영상 평가를 통해 각 시도 대표를 선발한 다음 결승 경기를 교육부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했다. 실시간 중계되는 6개 종목 예선에 1만 9,594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총 4개 종목으로 첫발을 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2019년 제12회 대회부터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축제의 장으로 즐길 수 있도록 변화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지도교사가 축전 참가 신청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참가자들이 경기 일정과 결과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석진 서울 성남고 감독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되니까 좋다.”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족구장이나 네트, 공 등 시설을 구비하는 것, 대회 참가를 위한 유니폼 제작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과장은 “지도교사가 축전 참가를 위해서 학생을 인솔하는 동안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명감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전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 5 천안에서 진행된 족구대회

6 긴줄넘기를 넘는 학생들(사진제공=학교체육진흥회)

족구 열정으로 똘똘 뭉친 원팀! 부산 신라중학교



“선생님~ 내일 7시에 모여도 됩니까?”

이 기억 교사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14명의 족구팀 학생들이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연습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며 팀원들을 향해 엄지를 올렸다. 공부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하니까 학생들은 아침에도, 점심시간에도, 학원 가기 전에도, 잠깐씩 모여서 발을 맞춘다. 이번 대회에는 3학년 학생들은 남겨 두고 1·2학년 9명이 함께 왔다. 2018년에 이어 부산지역 대표로서 두 번째 출전이다. 지난해에는 토스 개수를 측정하는 비대면 대회에도 참가했다. 족구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고 싶어서 2016년에 동아리를 만들었다.”라며 “그동안 족구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체력과 체격이 좋아지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형제가 함께 족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 강태우(2학년) 학생은 “애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공에 집중하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이 좋다. 운동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다른 사람들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라고 말했다.

공 사랑만큼은 우리가 족구왕 대구 팔달초등학교



“괜찮아, 끝까지 공에 집중하자.”

오동민 지도교사의 응원에도 순천 북초등학교에 간발의 차로 지고만 ‘팔달족구왕’ 학생들. “나만 잘했으면 될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리던 배건호(6학년) 학생은 “그래도 다음 경기가 있다는 것이 좋다.”라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오 교사는 “승패를 떠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를 통해 서로의 실수를 받쳐주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팔달족구왕팀은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끼리 공놀이하다가 족구 규칙을 하나씩 배우다 보니 팀 결성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오 교사는 “그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이 좋았던 학생들이 족구의 재미에 푹 빠지다 보니 대구 지역 대표로 오게 되었다.”라며 “축전은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경기의 박진감과 재미를 느껴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건호 학생은 “공격이 제대로 되어서 득점했을 때 짜릿하다.”라며 “다른 팀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는데 잘하는 팀의 플레이를 보면 꼭 같이 경기해보고 싶다.”라고 바랐다. 열띤 응원을 아끼지 않던 이경욱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족구나 발야구, 줄넘기 등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스마트하게, 더 다양하게 진화하는 학교체육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 변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학교체육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경우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활용하는가 하면, 중학생 수업에서는 에듀테크 활용으로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앱을 만들기도 한다. 체육 시간에 배우는 종목도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 이동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골프를 배운다. 약식으로 배우는 골프가 아닌, 마지막 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친다. 이 수업을 설계한 서광석 체육 교사는 "학생들이 골프를 배우는 체육수업은 학부모와 졸업생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라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을 제대로 이행하게 되는 좋은 본보기의 수업 사례"라고 소개했다.

VR 스포츠실, 초등부 수업의 범위를 넓히다

천안오성초 학생들의 체육수업은 주로 강당과 운동장에서 진행돼왔다. 3년 전부터는 여기에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이 추가됐다. 현재 고학년 체육전담인 박세원 교사가 부임하면서 이 VR 스포츠실 수업은 더욱 활기를 찾았다. 박 교사는 야외활동 체육수업이 불가능해지고, 실내체육 공간 부족과 교실에서의 수업 역시 위험요소와 제약이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VR 스포츠실 수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VR 스포츠실 수업의 장점은 이전까지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었던 콘텐츠의 활용으로 학습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이다. 일레로 볼링이나 양궁 등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는 실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다. 박 교사는 이를 '가상현실 표적형 게임에 도전하기' 등의 수업으로 구현한다. 이 수업의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표적·투기 등의 도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성공 수행을 높일 수 있는 기본자세와 동작을 이해하고, 도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볼링왕', '올림픽 양궁' 등의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기본자세와 동작을 익혀 도전 상황에서의 신체수련능력을 배우게 된다. 박 교사는 "볼링과 양궁 종목 등의 수업에서는 특히 수업 전에 학생들의 운동능력,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박 교사는 VR 스포츠실 수업의 또 다른 장점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그동안 신체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을 피하거나 소외됐던 학생들도 놀이처럼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게 되었고,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이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학급의 체육수업에서는 특수학생의 지도와 참여가 쉽지 않은데, 박 교사는 VR 스포츠실 수업으로 이를 극복해 가는 중이다.

초등부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하여!

"간혹 교사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체육교과 선생님들도 새로운 콘텐츠를 익히고 다루는 데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수업 적용이 초기이다 보니 콘텐츠 개발의 질적 향상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없지 않고요. 아직은 콘텐츠 개발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도록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VR 스포츠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을 수밖에 없다. 좁은 공간 문제는 박 교사가 꼽은 첫 번째 장애 요소. 천안오성초는 교실 크기를 한 칸에서 두 칸으로 확장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박 교사는 "여전히 농구 수업이나 라켓을 사용하는 종목은 천장에 걸리는 단점이 있다."라면서 "지역사회의 스마트스포츠관처럼 VR 스포츠실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천장 높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다.

박 교사는 지난해 비만 학생 등 체력 저하 현상이 눈에 띄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부터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기본움직임기술(Fundamental Movement Skills)'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달리기·점프하기 등의 이동성 기술, 굽히기·뺨기 등의 안정성 기술, 던지기·받기·차기 등의 조작성 기술의 실행과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견인해 가는 중이다.

1 2 천안오성초 VR 스포츠실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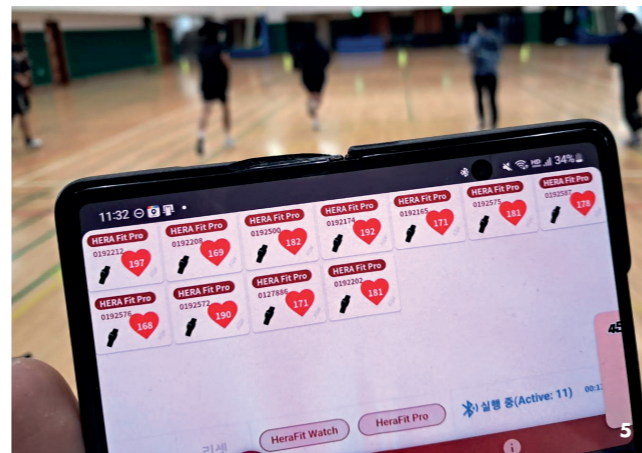
스마트한 체육수업, '기록'만이 승리한다!

경기도 포천 이동중학교 서광석 체육 교사는 구글 스마트활용 체육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명장'이다. 체육 시간에 이뤄지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화되어 기록된다. “나는 몸치야”라는, 이른바 ‘체육포기자’ 학생들도 매 순간의 기록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육 교사로서 저는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라는 말을 신뢰합니다. 기록은, 자신의 기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에듀테크 활용 체육수업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의 활동을 경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또 다른 자신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바라보자는 취지예요. 이 수업의 장점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기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수업의 주인공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동중학교 학생들은 ‘건강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건강습관 항목을 선택하여 관련 앱을 만든다. 아이들은 자신의 핸드폰 메인화면에 이 앱을 띄워 매일 건강습관을 점검하게 된다. 서 교사는 “아이들이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최소기간인 21일 동안 ‘운동, 수면, 영양’ 등 스스로 정한 항목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수행평가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는 건강한 습관 관리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체육이 확장하여 생활체육, 더 나아가 학생들의 평생 체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올해는 스마트워치 심박계를 활용하는 체육수업도 새로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심장이 뛰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서 교사는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의



- 3 4 학교체육 시간에 골프를 배우는 포천 이동중학교 학생들
- 5 이동중 서광석 교사는 스마트워치 심박계를 활용한 체육 수업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과 체력을 책임지는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체육 교사가 맡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에듀테크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로서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학생들은 개별적인 담당코치가 생긴 것 같으며 반깁니다. 앞으로도 체육활동의 누적기록들이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이 되고, 더 많은 학생이 체육수업을 통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유-연결-협력을 강조하는 서 교사는 포천에서 제주까지 온라인으로 교실을 연결하는 스포츠교류전 수업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과 북단의 중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눈 수업이었다.

골프수업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굿 샷! 낮 배드!”

이동중학교 학생들이 골프 수업시간에 하는 이 말은 친구들의 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다. 서 교사는 부임하면서 정규 수업시간으로 골프 종목을 선택했다. 10여 년 전, 동문 선배들의 지원으로 3타석의 연습 시설을 갖추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던 터였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소외된 체육활동에 대해 고민하던 서 교사는 교육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정규 수업으로 골프 종목을 도입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배우게 될 종목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생활체육과의 연계도 염두에 둔 교육과정이다. 마침 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여서 골프수업에 친화적 환경을 제공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골프가 알려주는 삶의 10가지 가치’. 체육수업을 통해 기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이들은 자신이 친 타수의 스코어카드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책임감과 용기’라는 덕목을 공부하게 된다. 또 타인에 대한 존중, 이타심, 통찰력 등 삶의 다양한 지혜와 가치들을 배우게 하는 수업이다.

“골프라는 운동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의 실제 삶과 연계하여 수업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수업시간에 실제 필드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열정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힘도 기르게 하고요.”

서 교사는 “학생들은 이 골프수업의 동반 라운드를 통해 인간관계 맺음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고, 또 지역사회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소소한 변화를 이끄는 등 골프수업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㉞

학생선수, 운동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



학생선수 학습권 문제는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확인하기에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상존한다. 사진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제도 개선방안 탐색 토론회' 장면

해묵은 갈등만 확인하다

지난 10월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교육부 주최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조대연 교수 연구팀은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및 최저학력제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는데, 필자는 이에 관한 토론자로 섭외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로로 필자는 2017년 국회에서 열렸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토론회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 후로 5년여가 지난 현재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날 연구팀이 발표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석인정제·최저

학력제 보고서에서는 정책이 애초 구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명확한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에 대한 각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명확하게 선택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표출됐다.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기획했던 전문가 집단에서는 '현상적인 부작용이 있지만, 정책 유효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문제에 관한 명쾌한

개선방안을 기대했던 필자에게는 해묵은 갈등만 확인한 시간이었다.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 갈등의 이유는?

그렇다면, 해묵은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점에서 갈등이 촉발되는 것인가?

먼저, 2018년 도입된 출석인정제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연간 대회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수입일수의 1/3(63-64일)로 했다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2022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교 25일로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선수에게 휴식을 주어 선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종목별로 대회 개최 일정과 특성이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대회 입상 경력이

필요한 학생선수들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제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최저학력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된 제도로, 학생선수가 본인이 속한 단위학교의 학기말 고사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최저학력 적용 교과(목)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이며,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학력제 또한 학생선수들의 최소 학업 성취를 제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학교나 지역마다 학력 수준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최저 학력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과 달리 학생선수들에만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학생들의 선택권이 결여된 대상 과목의 선정뿐만 아니라 그 과목을 선정한 근거에서 타당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선수는 전체 530여만 학생의 약 1.4%에 해당하는 7만 여명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과거 학교 운동부는 국가주도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위한 선수 육성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국·내외 스포츠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것이 학교 운동부와 학생선수들의 거의 유일한 목표이었던 만큼 맹목적인 운동 위주의 학교생활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올림픽 등에서 입상한 일부 스타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선수는 운동하는 것 외 별다른 경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했던 학교 운동부와 학생선수가 과도기를 맞이했다. 인권과 학습권 존중, 개인주의



최저학력제는 대회 입상 경력이 필요한 학생선수들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기획 4_ 학생선수, 운동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

강조 등과 같은 새로운 시대 흐름으로 인해 출석 인정제와 최저학력제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과거 운동 지상주의식 학교 운동부 관행과 부딪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학생선수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선수에게 운동과 학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출석인정제 및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학업 수행의 시간과 방법 제공이다. 학생선수는 일정한 기간에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단순히 이를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로써 강요하기에는 비현실적인 측면들이 많은 것이다. 즉, 학생선수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일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에 별도¹의 개인적 시간과 방법을 활용하여 학업 수행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회 출전 일수를 제한하여 억지로 교실에 앉혀놓는 것보다 각자 종목별 대회 일정에 맞춰 출전하게 하고,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별도 시간과 방법을 염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흡사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학습자가 검정고시 등과 같은 자신만의 학습 시간과 방



대회 입상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들에게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법을 통해 공식적인 학력인정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업이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일생의 과업에 있어 개인의 형편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학업수행의 기회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공통적인 최저학력 기준의 마련과 적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학교의 기말고사 평균점을 최저학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학교 및 지역마다 존재하는 학력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아 그 신뢰성과 타당성 있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전국 공통의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이것은 전국의 초·중·고 학교별 모든 학생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저학력의 기준을 공식²적 수준에서

¹ 그 별도의 개인적 시간은 대회가 없는 기간, 운동을 마친 방과 후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법은 개인 및 그룹 보충 교습, 온라인 학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운영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² 이는 교육부 등과 같은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한함을 의미한다.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의 공식화·공통화는 지역 및 단위학교 간 학력차이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그간 모호했던 최저학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안한 두 가지 대안들은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경우,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도 그 궤를 같이할 수 있어 보다 의미가 있다. 즉, 고교학점제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그렇게 누적된 학점을 바탕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출석률 및 학업성취도 등에서 문제가 있어 학점이수가 안되면 별도의 보충지도 등을 통해 재이수 방안을 도모한다.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학업수행의 시간과 방법의 제공은 이러한 보충지도를 통한 학점 이수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과목별 성취도 40%를 기준으로 이수와 미이수를 판정하는 최소학업 성취수준 개념은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념

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학업성취수준의 세부적인 추가 내용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학생선수 최저학력 관련 기준 등을 추가·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추후 제도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다.

학생선수의 입장 고려한 제도 마련돼야

학생선수 누구나 프로선수 또는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으며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킬 수 없기에 운동 말고도 자신들의 역량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기 오히려 뜻하지 않게 혼란과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선수도 학생이기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좀 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현실적인 학업 수행의 시간과 방법을 제공하고 공식적인 공통적인 최저학력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의 입장을 무엇보다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FOCUS 01 '여주한글시장'을 아시나요?

글_ 최홍길 명예기자



경기도 여주시의 한글시장은 시청에서 가깝기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원래는 경기도에서 제법 큰 상설시장이었는 데 2016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여주한글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끝자리가 5일과 0일에 열리는 오일장 때는 상설시장 주위로 가판이 서면서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잡화 등이 자리하기에 시장통은 연신 북적거린다.

이처럼 여주가 한글을 테마로 내세운 이유는 세종대왕릉이 있어서이다. 세종대왕릉이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지판들이 여주를 따라 흐르는 남한강 근처를 천하의 명당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주시는 세종대왕 하면 바로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르는 한글을 전통시장 활성화의 키워드로 가져온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시장이 여주한글시장이 되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시장 곳곳에 방문객의 눈길을 끄는 세종대왕상, 한글을 연상시키는 조형물, 한글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세종의 탄생으로부터 훈민정음 반포까지 이어지는 벽화골목은 여행객 필수 방문지이다.

여주한글시장은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역 너머 양쪽 거리로는 난전이 이어지기에 볼거리가 풍성하다. 아주 작은 맷돌로 후추를 가는 할머니의 모습과 같은, 전통시장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다. 난전의 여유 공간에서 간식을 곁들이는 가족들의 모습 또한 정겹다. 더 나아가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간이 식당도 등장한다.

1구역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 2구역은 여주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와 채집한 물건을 전시한 공간인 '여주두지'가 있으며, 3구역은 여주시장 상인들이 만든 협동조합 상품을 만날 수 있다. 4구역은 한글 탄생의 역사를 벽화나 조형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증샷 찍기 매우 좋은 곳이다.

우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간판 대부분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영어로 된 간판을 한글로 바꾼 것이다. 구역의 시작 지점에는 훈민정음 서문이 바닥에 각인돼 있다. 3구역을 지나 4구역 초입의 소년세종 동상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한다. 그렇기에 영특하고 풋풋한 소년 세종 주변은 인기 명소이다.

FOCUS 02 수능 이후 고3 교실 정상화를 위한 제언

글_ 이재형 명예기자

“대부분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 게임 해요~”
 지난해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의 풍경이다. 선생님이 통제해도 학생들은 들은 채만 체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올해도 11월 17일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고3은 수능이 끝난 후 약 30일간의 수업일수(학교별로 수업일수는 조금씩 다르다)가 남는다.

그런데 대입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후 교실에서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나마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나은 편이다. 성형수술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탈선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수능 이후 고3 교실 파행은 매년 지적돼 온 문제다. 남은 한 달간의 학교 수업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선배 학부모로서 수능 후 고3 교실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01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 생활예절, 준법정신 등을 가르쳐야 한다. 약 3년 동안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다. 학교도 유명대학 합격 결과에 신경 쓰기 때문에 정규수업 시간에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교육을 소홀히 해온 점이 있다. 남은 한 달간만이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배려와 관용의 정신 등 기본 윤리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02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시간이다.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는 수능 성적에 맞는 암기식 위주의 역사교육을 한다.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재 탐방조차도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청와대 등을 방문해 역사를 눈으로 보고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

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수능이 끝난 후 시간이다.

03 분단의 현실과 안보 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3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이다.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갖지 못한다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DMZ 투어라든가, 개방된 공동경비구역(JSA) 현장을 가본다면 안보 현실을 깨닫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04 봉사활동 등 사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주변에 불우이웃들이 사는 곳을 방문해 빨래나 청소 등을 하며 맘을 한 번 흠뻑 흘리게 하면 봉사의 참기쁨을 느끼게 된다.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하는 것도 좋겠다. 대학에 가면 또 취업 공부한다고 이런 시간을 내기 어렵다.

05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능 시기를 늦추거나 수시 제도를 변경해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게 하면 어떨까?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대학입학 성적을 볼 때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면 수능 후 고3 교실의 파행은 해소될 것이다. 학교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상황이라면 제도적인 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

교육부가 수능 이후 고3 교실 정상화를 위해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대를 걸어본다.

FOCUS 03 노동인권을 만나는 곳

글_백희 명예기자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을 뜬 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운동 발전과 근로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 전태일을 만나고 노동인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노동인권을 만나는 길’에 들어선다.

서울 압구정중학교(교장 홍준표) 1학년 학생들은 먼저 전태일 기념관 전시실 체험으로 시작하여 ‘전태일은 누구이며 무엇을 했을까?’로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청소년과 노동인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명희 강사의 “우리는 왜 살까? 어떻게 살고 싶을까?”라



는 질문에 학생들의 대답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생활이 행복해야 하고, 노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노동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전시실로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전태일의 삶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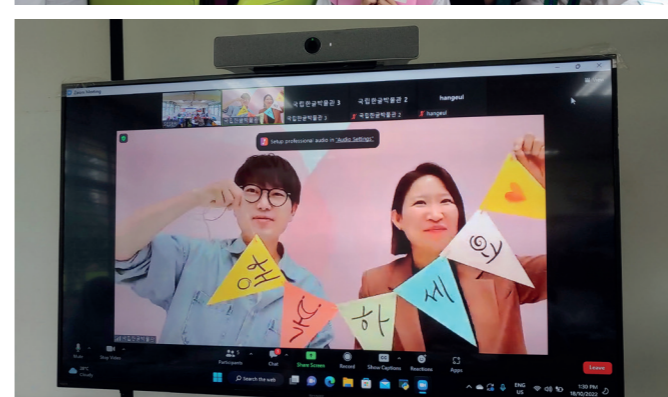
며 전태일에게 전하는 말을 써서 나무에 걸어본다. 이어 전태일 다리로 이동한다.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주변에는 오늘날 전태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전태일이 분신했던 곳에는 전태일 35주기에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만들어진 4천여 개의 동판이 있고, 그 위에 3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판에는 시민들의 절절한 글귀가 적혀있는데 사회, 정치, 문화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들도 동참하였다.

‘노동인권을 만나는 길’에 참여한 이재원 학생은 “힘들고 좋지 않은 노동 환경에서 일한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노동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근로계약에 대한 것도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인권 존중과 인권 감수성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고 무척 흥미로워했다. 전태일 동상에 손을 내밀어 보고, 거대한 평화시장 규모에 놀라고, 노동인권의 길에 깔린 동판들에서 전 대통령들의 동판을 찾아보기도 하며 활발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FOCUS 04 한글의 아름다움 세계로 알리는 ‘국립한글박물관’

글_김경민 명예기자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손으로 꽃 피우는 한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한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활동으로 한글 서체의 현대적 활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캘리그래피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한글 배지 만들기 등을 다채롭게 체험했다.

이번 원격수업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스세리 푸테리(SM SAINS SERI PUTERI)에서는 한 달 전에 활동 키트를 국제택배로 받아 기본교육 내용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라는 감탄과 ‘한글 쓰기 어려워요’를 연발하면서 열심히 캘리그래피 쓰기 연습을 따라 했다. 마지막 활동인 자신만의 엽서 만들기에는 ‘사랑해요’와 하트 그림이 가득했다.

해외 현지와의 원격수업은 국가 간의 시차와 온라인 환경에 따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준비한 담당자와 교육활동을 진행한 강사들도 해외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감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 학생들은 한국의 국립한글박물관 수업을 실시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한글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②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갑니다~

글_ 편집실 그림_ 이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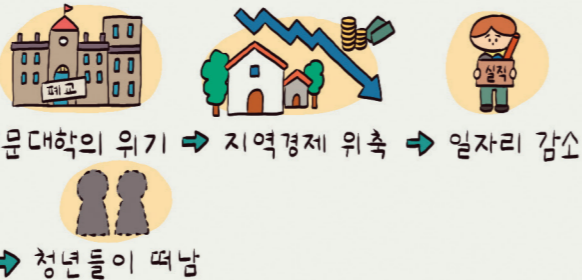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에서 47.2%에 해당하는 108개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이며,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학생 미충원으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폐교 위기의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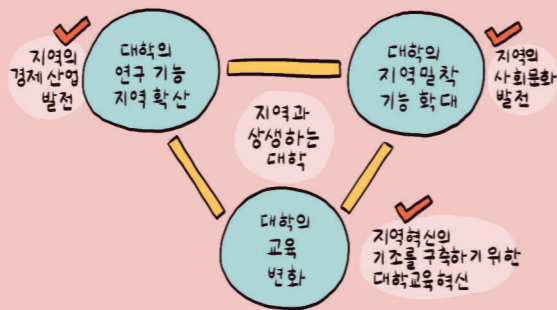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질 저하와 폐교는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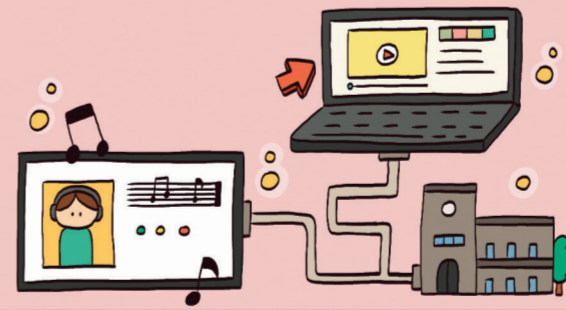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문대학이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올해 30개 연합체를 선정해 지역특화분야 직업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00대와 00대는 안양시와 연합체를 구성, 지역특화분야를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선정하고 AI시스템과, 응용SW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등 학과를 개편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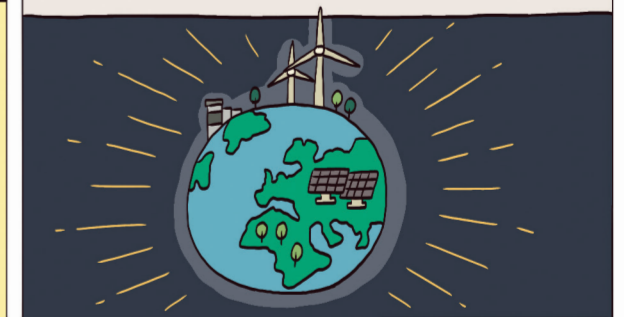
강원권에 소재한 0000대는 춘천시, 홍성군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보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6차산업 기반의 식도락 관광특화 인재를 키우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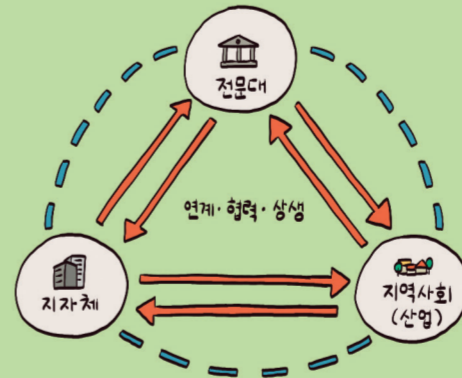
부울경권에 소재한 00대와 김해시는 시융합의료와 산업소방안전분야의 인력을 키워내는 전문화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내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시의료산업 전문가, 산업·소방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등 지역특화 심화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호남·제주권에 소재한 0000대는 첨단바이오산업 등 정읍시의 특화산업 육성에 맞춰 천연물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관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 관련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은 지역연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신설·개편 등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안정적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전문대학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초등 학습지원 플랫폼 '온학교' 실시간 '소통' 기반 열린 배움터



온라인 배움터 '온학교' 출범

'온학교'는 경상북도 내 전 초등학생에게 매일 저녁 7시 실시간 수업을 제공하는 무료 학습 플랫폼이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열려진 수업으로 학생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평을 받는 '온학교'를 소개한다.

글_ 편집실 사진_ 경상북도교육청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부족으로 교사의 79%가 학습 결손과 학생들 간 학습격차를 우려한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열린 배움터를 조성해보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노력이 '온학교'의 시작이다. '온학교'는 모든(온) 학생을 위한 따뜻한(溫) 온(ON)라인 학습 공간을 뜻한다.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유튜브 기반 실시간 수업을 개설하고 2021년 4월 5일부터 본격 '온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이후 다각도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끝에 올해 과정별 운영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 수업을 진행 중이다.

매일 저녁 7시 실시간 유튜브 수업

'온학교'는 수업 교사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도내 초등교사 120명이 직접 수업에 참여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1~2학년은 국어와 수학, 3~6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실시간 수업을 요일별로 들을 수 있다. 특히 1~2학년은 국어와 수학 과목에 한글 읽기와 창의 놀이 시간을 별도 구성해 저학년 맞춤 수업으로 설계했다. 또한 전 학년 공통 1일 2교시로 이루어진 수업은 1교시를 25분 수업으로 압축해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7월과 9~12월은 학기 중 과정, 8월과 1월은 방학 중 과정, 그리고 2월은 새 학년 준비과정으로 세분되어 있다. 학기 중에는 단원별 주요 교과 내용 복습, 방학 중에는 학기별 주요 학습 내용 복습 및 요점정리, 새 학년 준비과정에는 새 학년 교과서 미리보기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를 활용해 자기 평가 및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초등교사 120명 참여, 학생과 활발히 소통

여타의 유튜브 학습 콘텐츠와 달리 '온학교'가 갖는 차별성은 현직 교사에 의한 실시간 수업이라는 특징에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먹은 후 7시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또 다른 학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교사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을 관리하고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협력 교사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대면 수업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한 명의 교사가 서른 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을 관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때 협력 교사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별 학생들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활성화된 댓글 창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이어가며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표 - 온학교 수업 시간표

구분	시간(시량)	1, 2학년				3, 4, 5, 6학년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1교시	오후 7:00~7:25(25)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교시	오후 7:30~7:55(25)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구독자 수 1만 명 돌파... 교육 분야 정부혁신 최우수상 수상

현재 '온학교' 구독자 수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영상 누적 조회 수는 110만 뷰, 업로드된 동영상은 1,400여 개에 육박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 83%, 학부모 70%, 교원 76%가 해당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 참여 이유로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실시간 소통 중심 수업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온학교'는 2021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12월에 예정된 '온학교 운영 결과 보고 및 평가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의 성과와 함께 다소 미흡한 점 등을 돌아보고 이를 앞으로의 발전적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창의·혁신 미래 수업 모델로 '우뚝'

경상북도교육청은 시스템 운영과 수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증, 확인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교실 수업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교사와 운영 지원단, 수업 모니터링단 비대면 연수 등을 통해 수업의 내실화를 꾀한다. 이 밖에도 학년별 수업 연구와 수석교사, 총괄 부문 각 동아리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교사들 간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수업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체크하며 방송 시스템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2학년 실시간 수업 교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청의 지원에 힘입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1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발간한 '온학교' 사례집과 보내 초등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은 교사들이 얼마나 사업에 진심과 열의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온학교'는 학습자의 성취기준 중심 수업으로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창의·혁신 수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교원 역량을 강화하여, 블렌디드 러닝(온·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혼합형 학습 방법)이라는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 주도성 신장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가치와도 직결된다. 교육자치 시대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온학교'가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새삼 기대되는 대목이다. ㉠



학생 참여 모습



초등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온학교 홍보 영상

EDUCATION NEWS

vol.485
DECEMBER

NEWS 01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 원 편성

정부는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그 가운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인 1.9조 원으로 확대했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NEWS 02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부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하여,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통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표본통계 분석 결과 나타난 주된 변화는 손 씻기 실천율과 충치 유병률 등 개인 위생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비만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이며, 과체중 학생 비율도 1.1%p 증가해 11.8%에 달했다. 또한, 구강질환 학생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도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여행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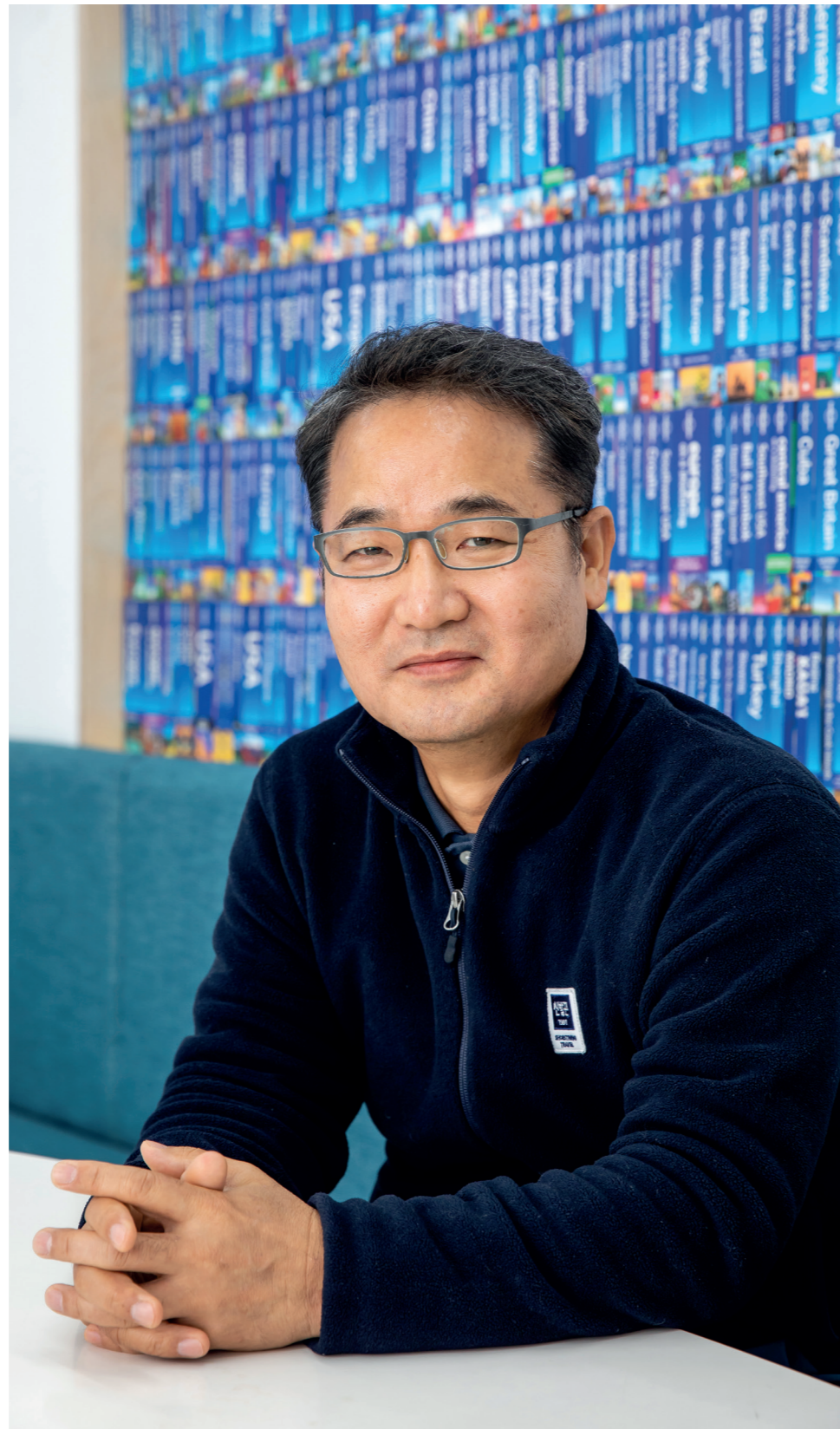
장영복
신발끈 여행사 대표

“여행의 시작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죠”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내 상품화하는 일까지가 여행기획자의 몫이라면 이 야심 찬 기획을 누구보다 당차게 잘 해내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배낭여행 1세대 여행기획자이며 30년 넘은 관록의 신발끈 여행사 장영복 대표이다. 그동안 실�크로드, 킬리만자로, 몽블랑, 산티아고 등 ‘지구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을 표방해 오며 ‘The different Holiday’를 개발하고 있는 신발끈 여행사 장영복 대표를 만나보았다.

글·사진 편집실



“여행기획자는 여행자인 동시에 새로운 것을 향한 탐구자이며 차별화된 기획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구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을 ‘어드벤처 여행’(Adventure Travel)이라고 말한다. 이 여행의 장점은 휴양지나 호텔 숙박에 관련된 일반적인 여행상품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깊숙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여행의 묘미 또한 느낄 수 있다. 여행기획자는 여행자인 동시에 새로운 것을 향한 탐구자이며 차별화된 기획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일 터다.

배낭여행 1세대 여행자인 신발끈 여행사 장영복 대표에겐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국내 최초로 워킹 홀리데이 발급, 최초로 남극과 북극 여행상품 개발,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여행안내서 출판사인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의 국내 최초 정식 배부처로 계약을 맺게 되기까지. 과연 그에겐 ‘최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동안 여정들의 목격한 갈피들이 있었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장영복 대표는 ‘지구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이라는 여행사 슬로건처럼, 그동안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여행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세계 최대 어드벤처 여행사인 G어드벤처 프로그램의 한국판매를 담당하고 근대 트레킹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뚜르 드 몽블랑(TMB)을 한국에 소개하는 등 트레킹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시초라 볼 수 있다. 또한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격인 ‘론리 플래닛’을 1993년에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해 소개한 그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어드벤처 전문여행사와 여행상품을 연계해 판매해 왔다. 다음은 장영복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여행기획자는 전문적으로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가?

국내에는 아직 여행기획자라는 직업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보통 서구권에서는 여행업의 분류에 따라 호텔에어, 어드벤처, 크루즈, 버스 투어로 분류가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여행 분류를 배낭여행, 패키지여행 등 고객에 맞춰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여행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진 제공: 장영복)
 1 북극점 도착 사진
 2 남극 서틀랜드 군도와 남극반도 여행
 3 론리 플래닛 창업자 토니휠러 부부와 함께



여행기획자는 오퍼레이터(Operator)의 개념인 것 같다. 즉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닌, 그 상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둘, 여행기획자가 된 계기는?

1988년 한국이 여행 자유화되기 1년 전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 그때 당시 학생이었기에 해외로 나갈 방법이 어학연수밖에 없었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자비로 유학 시험이라는 것을 봐야 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으면 합격증을 발급받는 시험이었다. 어렵게 여권을 만들고 호주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때 인연을 맺은 학교와 계약을 맺게 되어 후에 한국에 귀국해 학생 비자 대행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없었기에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게끔 중간에서 도와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셋, 국내 배낭여행 1세대이다. 그동안 여행기획자로 활동해오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맡게 됐다. 극지연구소에 발령된 건설 관련 종사자 70명을 쇄빙선을 빌려 태우고 남극에 내려준 후 혼자 배를 타고 돌아왔다. 국가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여행사가 중간에 도움을 준 형태가 된 것이다. 또한 몽블랑 트래킹, 실크로드 등 유명 여행 코스들을 직접 발굴하는 등 지금은 활성화된 대부분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넷, 끊임없이 새로운 여행 분야를 탐색하고 개척해왔는데, 그러한 열정과 동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즉 건물주나 땅 주인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웃음) 가장 좋아하는 말이 'This is your planet.'라는 말이다. 당신의 행성인데 왜 안 가느냐란

뜻인데, 세계 전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 여행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휴양을 위해 선택하는 여행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여행의 본질은 '새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행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던 마음이 여행기획자로서의 길을 가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들수록 자기 길이나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향이 있다. 나는 새로운 경험이 많다 보니 테두리 안에 자신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똑같은 경로의 익숙한 길만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다섯, 여행기획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자신 안에 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 뛰어난 자질이 있어 창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자신의 안에 쌓아가는 것이 후에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기획력도 마찬가지다. 내 안의 경계를 허물고 간접경험이든 직접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섯, 여행기획자의 미래 직업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서구화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 옛날에 비해 각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분명해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과 요구들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사에 따라 트래킹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도 있을 것이며, 크루즈만 다루는 여행사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여행기획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20~30년 전만 해도 여자 혼자 가는 트래킹은 희소했고, 여행 가서 누리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유능한 여행기획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행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재미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생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웃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선택을 당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주변에 의해 선택을 당하는 시기다. 이 과정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현재의 공부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즉 주변 상황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내게 된 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도래하는 것 같다. ㉠



여행기획자를 위한 진로 Tip

여행기획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 경비, 관광지, 숙박시설, 편의성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코스와 일정을 기획하고 총감독하는 자리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 또는 특별히 자격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관광경영학과, 관광통역과, 문화관광과 등을 나오거나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

여행기획자를 위한 배움터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관광 콘텐츠를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 홍보관도 좋은 배움터다. 글로벌 여행객을 위한 홍보관부터 세계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까지 여행기획자를 위한 체험처를 소개한다.

글_ 편집실 사진_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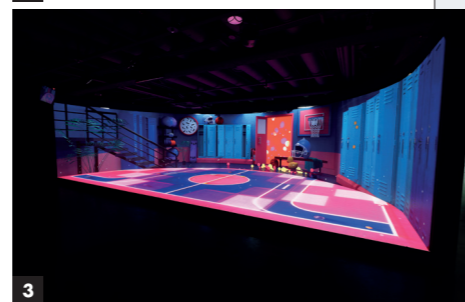
하이커 그라운드

K-콘텐츠 즐기는 여행자들의 놀이터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내에 건립된 한국관광 홍보관이다. 기존 홍보관이었던 K-스타일허브를 리모델링해 지난 7월 22일 새롭게 선보였다. 하이커라는 브랜드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KR)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Hi)와 글로벌 여행자들의 놀이터(Playground)가 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곳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한 인기 있는 한국관광 콘텐츠를 스마트기술과 한류, 아트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한다. 지상 5층 건물에는 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총별로 가득하다. 1층에서는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관광지, K-팝, K-드라마 등 생생한 한국관광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국내 5대 관광 거점도시를 주제로 선보인 '신(新)도시산수도' 작품이 대표적이다. 2층은 K-팝 체험존으로 뮤직비디오를 콘셉트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확장현실(XR)로 구현한 100여 종의 가상배경을 활용해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기획·촬영해 볼 수 있다. 3층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들이 한국관광 대표 콘텐츠를 재해석하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한류 드라마 등에 등장한 국내 관광지를 전시체험존에서 둘러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테마 관광지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국내관광 멀티체험존(4층)과 포토스팟이 있는 하이커 라운지(5층) 등이 있다.

- 1 미디어 타워
- 2 아트 뮤지엄
- 3 XR기술 활용 실감체험 스튜디오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 관람 화~일요일(10:00~19:00)
- 홈페이지 <http://hikr.visitkorea.or.kr>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세계 문화와 만나는 박물관 탐방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보자. 2019년 아시아관을 세계문화관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는 메소포타미아실, 중앙아시아실, 인도·동남아시아실, 중국실, 일본실을 갖추고 상설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각 전시실에서는 인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국제적이고 복합적인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미술, 인도·동남아시아 신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를 다양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 개관한 일본실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킨 무사의 새로운 면을 만날 수 있다. 칼과 갑옷 등 무사를 상징하는 무구와 함께 무사 계급의 후원으로 발전했던 노[能], 무사의 미학을 반영한 다도, 무사 계급의 여성이 혼례를 올릴 때 지참하는 마키에 혼례도구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일본 고유의 신앙과 합해진 독특한 일본의 불교문화도 불교 조각품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중국실에서는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 옥기와 청동기부터 명·청 시대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에 이르는 다채로운 중국 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휴게 공간에 재현된 청대 학자의 방에서 당시 미학적 품격과 취향을 생동감 있게 느껴볼 수 있다. 02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관람 월/화/목/금/일 10:00~18:00 수/토 10:00~21:00
- 홈페이지 www.museum.go.kr

- 1 인도 동남아시아실
- 2 일본실
- 3 중국실

신라 화랑의 마음을 사로잡은

속초 영랑호를 걷다

속초는 호수 부자다. 북쪽에 영랑호, 남쪽에 청초호를 품었다.
 두 곳 모두 바다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든 석호이다. 외곽에 있는
 영랑호는 시내 쪽 청초호보다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호젓하다.
 옛 기록에 많이 등장해 역사 관련 애깃거리도 풍성하다.
 옛사람들이 반했던 영랑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영랑호 둘레길을 걸으며 당시 풍경을 상상해본다.

글·사진_ 김혜영 여행작가

신라 화랑의 수련장이었던 영랑호

영랑호 이름은 신라 화랑 '영랑'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온다. 영랑이 금강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무리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경주(서라벌)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속초쯤에 이르러 우연히 한 호수를 발견하고는 경치에 반해 경주에 가는 것조차
 잊고 오래 머물렀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호수를 '영랑호'라 불렀다고 한다. 영
 랑호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뀐 청초호와 달리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걸 보면, 옛사람
 들이 영랑호와 영랑의 인연을 꽤 중시했던 모양이다.



늦은 오후 영랑호 생태 데크쪽에서 범바위 방향으로 바라본 풍경



영랑이 다녀간 뒤로 영랑호는 화랑들의 수련장으로 이용됐다. 이 사실에 착안해 호수 북쪽에 화랑도체험관광단지가 들어섰다. 이곳에서 화랑들이 수련할 때처럼 활쏘기, 승마, 격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영랑호는 화랑들뿐만 아니라 고려·조선시대 문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듯하다. 고려시대 안축과 이곡, 조선시대 정철, 김창흡, 구사맹, 이몽규, 이상질, 이세구 등 많은 문인이 시문집에 영랑호를 담았다. 2016년에는 영랑호 동북쪽 둘레길 옆(속초시 장사동 647-49)에서 조선 후기 학자 송시열이 ‘영랑호’를 새긴 바위가 발견됐다. 바위 동쪽 면에 ‘영랑호(永朗湖)’라고 석 자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1675년 송시열이 함경도로 귀양 갈 때 영랑호를 지나다가 풍경에 감탄하며 글자를 남긴 것으로 추정한다. 글자가 마모되고 안내판이 없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쉽다.

자연 친화적인 영랑호 둘레길

영랑호 둘레가 약 7.8km이다. 자전거와 사람, 차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보통 걸음으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차량 통행이 적어 호젓하게 걷는다. 호숫가에 억새, 갈대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초겨울이라 억새와 갈대꽃이 윤기를 잃고 푸슬푸슬해졌지만, 오후 햇살을 이고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을 낸다. 호수 위 윤슬은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눈부시게 반짝인다. 해 질 녘 호수가 붉게 물드는 날에는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 눈물이 저절로 난다는 주민의 말이 이해된다. 이맘때면 겨울 철새가 어김없이 영랑호를 찾아와 수풀 주위에 둥지를 튼다. 논병아리, 물닭, 청둥오리, 비오리, 흰뺨오리, 붉은머리오리 등이 영랑호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떠난다. 철새지만 노쇠한 몸으로 먼 길 떠나지 못해 상주하는 가마우지, 왜가리, 백로도 일부 있다고 한다. 영랑호 동북쪽 갈



1 범바위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포토존. 영랑호 둘레길에 있다.
 2 호젓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영랑호 둘레길
 3 범바위 위에 세워 놓은 영랑정

대밭에 조성된 생태 데크 주변에 철새가 많이 보인다. 데크 벤치에 앉아 검은 물닭들과 덩치 작은 논병아리와 우아한 백로가 각자의 구역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수심이 얕은 곳에 새끼손가락만 한 전어 새끼가 떼 지어 다니고,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복어가 동동 떠 물결을 타고, 팔뚝만 한 송어가 어슬렁어슬렁 헤엄치는 모습도 재미있다. 영랑호 문화관광해설사 말에 따르면, 영랑호에 가자미, 굴, 홍합도 산다고 한다.

영랑호수윗길에서 바라보는 범바위와 울산바위

둘레길을 걷다 보면, 작년 11월 영랑호 물 위에 띄운 ‘영랑호수윗길’을 지난다.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이 부교는 길이 400m, 폭 2m, 중간 지점에 지름 30m의 원형 광장이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호수 둘레를 감상하며 광장에 도착하면 화랑이 반했을 법한 풍경을 마주한다. 범이 웅크리고 앉아 물을 마시는 모습을 닮았다는 범바위와 웅장한 설악산 울산바위가 거울처럼 맑고 잔잔한 호수에 잠겨 있다. 범바위는 보는 위치에 따라 상어 머리, 물개 머리, 배부른 구렁이, 거북, 고래 등 여러 모습으로 변신한다. 범바위에 오르는 방법은 예상외로 쉽다. 호수윗길 근처에 범바위 꼭대기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이 있는데, 5분 정도 올라가면 된다. 계단 끝에 세워진 영랑정은 영랑이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의 정자에서 놀았다는 옛 문헌을 참고해 이름 지었다. 영랑정 뒤쪽 너럭바위에 오르면 동글동글한 감자와 쪼개 놓은 감자처럼 생긴 바위 서너 개가 올라앉아 있다. 바위 몸통에는 밧줄 같은 테두리가 둘러 있는데, 주민은 바위가 반지를 찼다고 표현한다. 감자 모양 바위와 너럭바위를 유심히 보면 한자 이름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옛사람이 새긴 한자라고 한다. 요즘 사람들이 SNS에 여행을 기록하듯, 옛날 사람들은 바위에 이름 새겨 자신이 다녀갔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걸까. ㉠

영랑호수윗길



주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49

문의 033-639-2690

입장 시간 겨울철(11월~2월) 07:00~21:00/ 연중무휴/ 무료입장

Tip ‘영랑호 스토리자전거(033-637-7009)’를 타고 영랑호 둘레길을 도는 방법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전하는 3인승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영랑호와 속초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찬찬히 체계적으로 '느린 학습자' 지도하기

글사진_ 정가희 인천서흥초등학교 교사(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전문교원)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 많은 느린 학습자, 난독증, 경도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읽기지도를 하면서 찬찬히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



느린 학습자는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이 학생들은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작업기억 능력이 부족하여 배우는 내용이 복잡하면 더 어려워한다. 아울러, 주의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지속해서 집중을 유지하며 학습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중에 인지치료나 주의력 집중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나 방법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8월 ‘느린 학습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의 학술대회가 있었다.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매우 유익했다. 이 대회의 주요한 주제를 정리하면 첫째, 지능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치료나 교육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둘째, 느린 학습자는 지능이 71~84라는 공통 점만 있고, 사례마다 매우 다양한 어려움이 공존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초·중·고 학생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초학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생은 모든 교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인지치료나 주의력 훈련으로는 ‘학습’에 필요한 읽기, 쓰기, 기초수학과 같은 기초학습과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느리지만 잘 배울 수 있어요

나의 교직 생활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도 그렇다.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에서 보듯 찬찬히 체계적으로 개별화하여 가르치면 아이들은 ‘느리지만 잘 배울’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연구 사례에 비춰봐도 유효한 방법이다. 아마 학교 교사라면 학생의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되면 평소 학생의 태도와 자신감도 좋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했거나 더듬더듬 읽던 학생이 잘 읽게 되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그동안 나의 읽기 지도 사례를 통해 본 느린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지원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을 과제분석하고, 세분화하여 지도한다.

과제분석이란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더 단순한 하위과제로 분할하여 분석하는 활동 혹은 계획을 말한다. 느린 학습자는 작업기억의 결손으로 한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과제의 양을 더 쪼개고 단순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글을 지도할 때 처음부터 단어 수준 읽기를 통해 지도하는 것보다는 모음→자음→자음과 모음 합성 순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글을 지도하는 교재로 ‘찬찬한글’이 있다. 느린 학습자나 경도 지적장애 학생에게 찬찬한글을 지도할 경우, 모음과 자음을 읽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받침 없는 단어를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02 내용은 같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느린 학습자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이 배운 내용을 완전학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경우, 학생도 교사도 지치게 된다. 따라서 학습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학생이 혼동하는 부분을 더 잘 알아가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한글을 지도하다 보면 모음의 소릿값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소릿값과 글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를 보고 ‘어’라고 대답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아’의 소릿값을 더 명시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입모양카드를 사용하여 반복 연습할 수 있다. 입모양은 보기만 해도 바로 소리가 생각나는 도구이다. 따라서 교재로 가르쳐도 소릿값을 혼동한다면, 입모양을 사용하면 좋다. 입모양으로 ‘아’와 ‘어’의 소릿값을 구분하게 되면 글자와 입모양을 매칭하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반복해도 교사가 한글을 가르치는 동안 학생이 지속적으로 혼동하는 글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학생이 완전학습할 때까지 짧게라도 계속 연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와 ‘우’를 계속 혼동하는 학생의 경우 모음을 모두 배우고 자음을 지도하더라도, 자음을 지도하면서 한 회기의 5분 정도는 ‘오’, ‘우’를 다시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알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지도하면, 완전학습할 수 있다.

03 주의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학습 계약을 정한다.

많은 느린 학습자들이 주의력에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주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정해진 학습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의집중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짧다. 그래서 주의집중 시간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대 집중 시간이 20분 정도라면, 학습 시간을 23분 정도로 조금씩 늘려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학습한 뒤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사가 “23분 공부하면, 풍선 1개를 줄게요.”라고 말로만 전달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23분 공부하면 풍선 1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학생과 함께 학습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시간을 정하고 타이머로 23분을 맞춘 뒤, 학습 시간을 지키면 학생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사례를 통해 교사도 배운다

많은 느린 학습자, 난독증, 경도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읽기지도를 하면서 찬찬히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올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느린 학습자 및 난독증 학생을 지도하는 연수과정 슈퍼바이저로 참여했다. 여기에서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 수준의 학생들도 약 40회기 지도를 통해 한글을 해득하고, 단어 읽기에서 놀라운 성장이 있었다.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 작가 존 그리샴이나 금융가 찰스 슈왓, 유전학자 조지 처치도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느린 학습자도 느리지만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

- 1 학생이 배운 내용을 완전학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소릿값 이해를 위한 입모양카드
- 3 학습계약으로 23분 공부하면 풍선 1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4 한글을 지도할 때 모음, 자음을 세분화하여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혼자보기 아까워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보합니다!



Q 이관희 대전 세천초등학교 교사



대취타를 아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 국악관현악 등 국악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취타를 들어보신 적 있으요? 대취타는 왕 또는 군대 등의 행진에 연주되던 군례악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대청호의 어느 한 자락에 자리한 세천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전 유일의 대취타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대전예술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아이들이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Q 서화영 서창고등학교 교사



우리는 서창고 우주최강 2학년

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되고, 일정이 연기되어 10월 3일 연휴에 떠나게 된 사상 초유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매뉴얼 제작부터 80장에 달하는 수학여행 세부 계획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0명의 학생과 14명의 인솔 교사가 똘똘뭉쳐 수학여행 당일 아침 버스에 타기 전 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내내 하루에 4회 발열 체크 대장을 기록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안전하게 제주도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Q 김민중 대구서재초등학교 교사



대전! 댄스 배틀

지역 공연단이 학교에 직접 찾아와 풍물놀이, 사자춤, 댄스 등 다양하고 신명 나는 공연을 선보였는데 댄서들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댄스 배틀이 벌어졌어요. 끼가 넘치는 아이들이 저마다 오늘은 내가 최고의 댄서라며 현란한 몸짓을 선보였습니다. 그래, 막춤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Q 정경선 가람중학교 교사



3년 만에 열린 전 학년 체육대회

가람중학교 체육대회는 올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년 만에 전 학년이 모여 신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진행한 개폐회식부터 체육 수업과 연계한 공연 발표, 미술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참여한 학급응원 현수막, 댄스동아리 축하공연과 춤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주도한 학급응원 댄스, 교사들의 참여가 돋보인 사제 간 축구대회 & 교사-학생 이벤트 달리기까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했던 가람중의 자랑 체육대회를 소개합니다. 🍷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장우익 님

<네 꿈을 펼쳐라>를 읽고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관광특성화고등학교 동아리 '트레블 메이커'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최근 점차 열리며 해외여행을 다시 계획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나도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팬데믹 전에는 꾸준히 다닌 편이지만, 최근 다시 3년 만에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 설렘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동아리 학생들이 여행에 꿈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노는 데만 관심 있을 나이에 대단하지 않은가. 앞으로도 여행 동아리 '트레블 메이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





서범석 님

<교육자치시대>를 읽고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늘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통합 돌봄으로, 인근 학교가 함께 모여서 돌봄 공동수요를 충족시킨다. 기존보다 연장된 돌봄 시간,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대상 확대,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는 심리상담 지원 등 더욱 촘촘해지고 새로워진 공격 돌봄이 특징적이다. 이곳에서는 영역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를 중요하게 봤는데, 방과 후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다면 교육효과가 배가할 것이다.



장삼동 님

<교육포커스>를 읽고
많은 학생이 성적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 지치고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꿈꾸고 갈망한다. 지친 학생들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학교 수는 대안학교와 대안 특성화 중·고교를 모두 합쳐 94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1990년대부터 학교가 설립되어왔으나,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은 현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대안학교는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 학교와 가장 큰 차이이다. 학생들은 그 안에서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육을 받으며 각자의 꿈과 희망을 키워 간다. 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7

EVENT	(글/농민) 2023. 12. 13
	<p>교육부는 '고등0000거점지구사업'을 추진해 전문대학은 지역연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신설·개편 등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안정적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전문대학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갑니다.</p> <p>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p>
	



수능 이후 고3 생활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 해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발표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 지속
 -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 금융·근로교육, 진로체험 활동, 대학탐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진로탐색버스 등 우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 소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공개강의 제공으로 희망 전공 강의 체험
 - 대학 학업·진로상담 등 다양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제공

고3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합니다!

- 겨울방학 동안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무료 진행
 - 학생 맞춤형 학교와 대학, 민간기업 등 여러 기관이 주관하여 정규교과와 연계한 기초 및 심화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심화과정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 대면 캠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 지원

※ 2023년 2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올해 12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특별기간 운영,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7.~12.31.) 운영 및 안전 교육 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및 안전관리·점검 강화
 - 응급처치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위(Wee)클래스 운영, 지역별 위(Wee)센터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청소년1388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 지원

수능 이후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에서 확인하세요!